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방황과 혼돈의 젊은 시절



이래경_ 서울대 금속공학과 73 학번, 김근태의원후원회 운영위원장, 미주기업가회의 초대·2기 회장, 참여하는과학기술인연대(참과기연) 운영위원, 한반도재단 정책연구회 회장(현)

1970년대, 참 까마득하게 먼 세월의 먼지진 책장에서 잊혀져 색바랜 책을 꺼내는 심정으로 기억을 더듬어 되살려 본다.

이공계였던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한국의 정치상황에는 별반 관심이 없었다. 사회과 선생님이 간혹 학과시간에 박 정권이 영구집권을 꾸미고 있다고 용기 있게 고발할 때도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포항에 고로를 사용한 일관종합제철소를 준공하여 한국의 중공업화 기반이 이루어졌다는 데 자부심과 함께 감격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앞의 용기 있던 사회과 선생님은 기어코 1974년 이 땅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 그리고 나는 선진한국의 공업화에 일조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공학도가 되겠다고 1973년 금속재료공학부에 진학했다.

대학의 분위기는 내게는 다분히 이중적이었다. 대학생활은 자유, 진리 그리고 낭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학년 새학기는 여대생들과 과별 미팅으로, 이제는 이름도 잊어버린 서양의 카드놀이로, 저녁에는 여고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로,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에는 명동 근처에서 통기타음악에 생맥주를 즐기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한 편에서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헤겔의 <변증법>, 그리고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읽어보면서 지난 날 배워왔고 믿어왔던 교육 내용과의 충돌에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대단히 보수적이었던 종교단체인 YFC (Youth For Christ) 회장이었고 한때는 신학을 공부할까도 심각하게 고민했던 내게 대학 초년의 분위기와 교양학부의 강의 내용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YFC 부회장이었고 신학대학에 진학했던 한 친구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회복중에 그만 죽는 사건이 터졌다. 황달이라는 영양실조의 지병으로 눈알이 항상 노랗던 그는,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기적이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병이 반드시 나으리라 싶어 시작했던 금식기도였지만, 황달병에 금식은 너무도 치명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그의 장례예배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에 친구를 먼저 데려갔다고 하는 담당목사의 축복 설교에 너무도 화가났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것을 기회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장장 대학노트 7장에 걸쳐 적어 교회 목사님께 부치고는 발길을 돌렸다.

좌표를 상실하고 표류하는 배처럼 방황은 그렇게 시작됐다. 고3 시절에도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새벽기도를 다녔을 정도로 골수신자였고, 집에서는 여호와증인이셨던 어머니와 끊임 없는 교리논쟁을 벌여왔고-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여호와증인을 지도하는 감독형제가 되는 것이었다-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내 후배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 왔던 내가 교회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만한 충격이었는지! 방황의 피난처는 그저 어울려 다니는 것이었다. 시간만 되면, 핑계만 되면 술집으로 어울려 다니는 것이다. 아무런 뜻이 없는 횡설수설의 이야기로 채워진 생맥주와 시간이 소비되는 시절의 연속이었다. 때마침 대학은 연일 데모로-나는 왜 데모들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다-매학기는 2개월을 못 넘기고 휴강하기 일쑤였고 레포트로 학점을 대신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방황에 폭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밤길에 생각없이 아가씨들을 쫓아다니다가 영락없이 퇴짜를 맞곤 했다.

나는 고교 동문들과 길 맞은 편에 있던 여고 졸업생들과 함께 하던 문학교양서클을 다녔다. 문학서클이라지만 변변한 직업문학가 하나 배출하지 못한 그저 젊은 시절의 객기를 배출하는 사교모임이랄까? 그래도 하찮은 토론을 위해서는 정해 놓은 책들을 읽어야 했고, 주제

들을 고민해 보곤 했다. 모임 선배 중에 같이 YFC 활동을 했고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던 일년 위의 박우섭이 서울대 연극반을 다니면서, 당시의 문제작들이 토론의 주제로 오르곤 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공, 황석영의 객지, 조선작의 이름도 잊어버린 시골치녀 상경이야기 같은 소설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접해보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서울공대는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선 학생회장을 뽑았다. 같은 학과의 일년 위였던 이종원 선배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못 되어 그는 제명 처분과 함께 수배를 당하고 학교는 다시 휴교로 들어갔다. 민청학련 사건이구나?

당시에는 대학 신문 읽는 재미가 있었다. 특히 백낙청 교수님이 연재하시던 스타달의 <적과 흑>에 대한 문학 평론이 백미였다고 기억된다. 지금 생각하면 A.하우저의 <예술과 문학의 사회사>를 연재형식으로 소개하고 계셨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글 사이사이 백 교수님은 정치사회 현실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계셨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중 이런 구절이 있었다.

“스스로 양심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억압되고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지성인이 그저 침묵만을 지키는 것은 최악이다.”

그렇게 세월은 갔고, 1975년 3학년이 된 나는 이젠 전공 학과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에 앞의 박우섭 선배가 4월 초에 학교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을 당한다. 친형제처럼 지내던 박우섭 선배였고 그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위의 백 교수님 말씀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곧이어 서울농대 복학생이었던 김상진 씨가 유신정권을 비판하고 박정희의 하야를 요구하며 할복자살을 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전국의 모든 주요 대학교에 휴교조치가 떨어지고 정국은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서울공대는 4.19 혁명 때에도 휴강하지 않았다는 전설과 산업화의 요람이라는 지부심과 그 입지가 서울 중심에서 외떨어져 있는 공릉동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강의를 강행하고 있었다.

아! 침묵할 수 없다. 그러나 생뎡주와 함께 2년 간을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방황해왔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단 한 사람의 죽음일지라도 이를 무시하는 사회는 이미 불의한 사회임에 분명하다. 김상진 씨가 한 행위가 옳은 것인지 자신있게 이야기 할 자신은 없었

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우리 사회는 잘못되어 가고 있었고 이를 고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다.

할복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 밤을 틈타 발길을 끊었던 교회 대학생부에 몰래 들어가 밤새도록 유인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느끼는 복바치는 심경을 ‘인간선언문’이라는 줄렬한 제목에 붙여 1000여 장 만들어서 새벽 5시경 등교하여 여러 강의실과 화장실 등에 뿌려 놓았다. 누군가 내 대신 앞장서 일을 벌여주기를 학수고대를 하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휴우 하고 안심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허탈했다. 때마침 실험파트너로 광주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던 당시 삼십대 후반의 이선웅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은 60년대 초 서울 상대를 입학하여 다니다가 한일회담반대 데모로 제적을 당하고 군대를 다녀와 인문대 영문과에 다시 입학했다가 학생데모로 그만 두고 세번째로 서울공대를 들어온 전설적 인물이었다. 당연히 학생과와 정보계통은 그에게 시선을 쫓고 있었다. 무심코 실험시간에 그에게 나의 답답하고 허탈한 심경을 이야기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그는 준비한 듯이 시원스럽게 나를 부추긴다. “내경아, 4월 18일 10시에 내가 2호광장 잔디밭에 사람을 동원할 것이니, 자네가 그때에 맞추어 앞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해서 김상진 씨의 추모집회를 갖자.”

학내 학회나 지하서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치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마냥 순진한 나는 흔쾌히 동의하고는 한편은 불안하게 한편은 가슴 벌렁이며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디-데이 하루 전날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오전 10시경 2호광장에서 왜! 하는 함성이 들린다. 순간 나와 이선웅 씨의 눈빛이 마주친다. 그는 끄덕인다. 나는 책상을 치고 일어 선다. 학과 동기생 몇몇도 따라 일어선다. 당황하는 교수님은 우리를 막아 서신다. “다쳐! 안돼!” 교수님의 애정어린 하소연을 뒤로 하고 우리는 2호광장으로 내달린다.

2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주동한 학생은 안 보인다. 서울농대생들이 들어와 잔디밭에 모여 있던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뿌리고는 사라진 후이다. 주저함 없이 내가 나섰다. 인간선언문에 적어 놓았던 심경을 선동조로 이야기 하면서 김상진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 민국 만세! 와 함께 추모의 묵념을 진행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앞다투어 나와 유신정권을 비판하는 성

토와 추모의 웅변이 이어졌고 이윽고 스크럼을 짜고 시위가 시작되었다. 언제 알고 달려왔는지 무장한 진압경찰이 학교 주위를 에워싸고 공방전이 벌어진다.

2, 3시간의 격렬한 싸움, 돌맹이질-그 당시에는 화염병은 없었고 각목과 돌뿐이었다- 과최류탄, 그리고 철벽을 두른 페퍼포그전차와 일전을 치른 후, 마음이 후련해졌다. 경찰 측에서는 일단 귀가하는 퇴로를 열어 놓았고, 나는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려 대낮부터 청량리 어느 구석에서 몇 시간이고 계속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다. 정말 마음이 후련했다. 김상진 씨에게 추모집회로 빛을 갠아서였고, 지난 2년 간의 방황에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다는 예감이 들어서였다.

어둑할 무렵 사당동 집으로 돌아와 세면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백차와 함께 형사들이 들어 뒹친다. 집은 아수라장이다. 곧바로 태능경찰서정보과로 연행된다.

“자네가 이래경인가?” “네.”

“문제서클 회원도 아닌 놈이 왜 나셨나?”

“저도 이시대 학생입니다.”

“이선웅이 알지? 그 놈이 시켰지?”

“아닙니다.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너, 돌도 던지고 각목도 휘두르고 했지?”

“돌은 던졌습시다만, 각목은 안 휘둘렀습시다.”

“이런 순진한 놈, 돌만 던져도 구속이야, 구속!”

“왜 그랬어?”

“유진체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할복한 김상진의 추모집회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공대생이 공부해서 산업전사가 되야지, 무슨 데모짓이야!”

“산업화 이전에 민주화가 먼저입니다.”

“공대에 골치 아픈 놈 하나 생겼군.”

새벽까지 계속된 조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넘어갔을 땐 이미 여러 명이 먼저 와 있었다. 대부분이 문제의 서클간부를 맡고 있는 듯했다. 물론 이선웅 씨도 와 있었다. 강의실을 치고 나올 때 그는 긴급히 성명서 내용을 초안하고 집회장소로 오다가 사복 형사에게 잡혀 미리 끌려

와 있었다. 하루가 지난 후 내게 호출이 내려졌다. 마침 가까운 친척이 당시 정보부의 고위 간부직에 있어서 집안에서 연락하여 나를 빼내려고 뒤에서 손을 썼다. 조사를 한 형사는 내게 한 일을 되풀이해서 물었다. 이선웅이 시켜서 앞에 섰다? 돌도 던진 적이 없다? 등등.

나는 다시 되풀이해서 당시의 내 심경과 한 일을 사실적으로 답변했다. 어쨌든 경찰서에서는 훈방처리를 했다. 부모님들이 경찰서에서 나를 인수해 가려고 이미 대기중에 있었다. 경찰서를 나서는 내 귓가에 정보계장의 소리가 들렸다. 참, 골치아프게 생겼다. 경찰서에 남아 있는 교우들에게 부끄럽고 참으로 미안했다.

삼사 일 뒤에 교수님과 학과장께 사과와 설명도 할겸 학교를 찾아갔다. 정문 입구에 써 붙인 공고문이 눈에 쏙 들어온다. 4월 21일자로 나와 이선웅을 포함하여 7명을 제명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시위가 있던 지 불과 3일 만에 아주 신속한 결정과 처분이였다.

당시 학과장님은 내 담당교수셨고 버클리공대의 최우수장학생 출신으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히 높았던 분이셨다. 그는 신속한 제명 처분에 너무나 미안해 하시면서 배경을 설명하신다.

당시에는 경찰 처분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학사처분을 하도록 연동되어 있었고 둔마장관으로 세상에 웃음거리였던 유 문교장관의 직접지시로 20여 명을 제명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한다. 실제 처분할 구체적인 대상 학생은 나와 이선웅뿐이었다. 교수회의의 심각한 토론 끝에 학내 서클 리더 5명을 추가하여 도합 7명을 처리하는 것으로 타협했다고 한다. 교수님의 미안해 하시는 눈빛을 더 보고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얼른 자리를 끝내고 일어나면서, 그러나 내 자신에게 답하듯이 인사를 드렸다.

“대학졸업에 연연해 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사실 내 마음은 교수님께 미안해 하고 있었다. 그도 나처럼 잘못된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한 달쯤 지나서 아침에 갑자기 동회에서 직원이 나왔다.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러 자기와 함께 국군통합병원을 가야한다. 내가 혼자갈 수 있다고 몇 번이고 말했으나, 그는 결국 나와 동행을 했다. 통상 신체검사는 한나절 내지는 하루종일 걸리기 일쑤였으나, 내 경우에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징집관 앞에 섰다. 신체검사에 이상은 없다. 다만 내가 유

별나게 키가 작아 을1종이었으나, 학력을 감안하여 현역징집대상이었다.

징집관이 묻는다.

아픈 데 없는가?

키가 작아 고생할 텐데 군에는 가겠는가?

연기를 신청하면 사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는 대답했다.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 현역병으로 군에 가게 되서 멋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징집명령서를 전달한다.

‘징집명령서 -집결장소 1975년 6월 13일 의정부소재 중앙국민학교 운동장’

불과 보름이 남은 기간이었다!

그렇게 해서 학적변동자(통칭 아스피린)의 군인사비상 1호가 시작된다. 6월 13일 당일 의정부에 모두 13명의 아스피린이 각 대학에서 모여들었다. 그런 인연으로 이동섭 씨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친한 벗으로 지내고 있다. 보통 징집대상자들은 곧바로 논산근처의 장정대기부대로 이동하여 재차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논산 훈련소로 투입된다. 그런데 아스피린 13명을 한꺼번에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일 주일에 3명씩만 투입했다. 재수가 없어서인지 나는 맨 마지막에 걸려 장정대기부대에서 장장 한 달 가까이 텅으로 군대생활을 더해야만 했다.

군에 입대할 때 나는 국가가 모두 입혀주고 먹여주는 데 무엇이 걱정이라 싶어 다 낡아진 겹옷에 속옷 한 벌, 그리고 달걀 1,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장정들은 아직 정식군인이 아니라 밥 세끼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급이 없었다. 여름철이라 도망을 염려해 장정 대기부대에서는 팬티와 런닝셔츠 외에는 허용이 안 되었다. 상상을 해보라! 낡은 팬티 한 장으로 한 달 동안 빨지도 못한 채 버티니 헤어지고 찢어진 그 모습이 마치 나뭇잎 가리개를 걸친 아프리카 추장 같았다.

이후 3년 간 정확히 32개월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 같은 세월을 보낸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와 달라 생략한다. 그러나 당시의 아스피린 군대생활은 감옥생활보다 아마 몇 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혼적으로 한계상황을 여러 번 넘기곤 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특별한 군대경험이 이후 삶에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골병 든 관절에 통증으로 오기도 하지만, 1980년 이후 병역대책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감방에 갇힌 동지들을 군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데모를 한 이범영, 천희상 등 여러 동지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지금은 산업대교수를 하고 있는 김삼수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74)의 군대생활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아 골통과 고문관을 자처하며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옮겨 다닐 때, 그는 나보다 2, 3개월 앞선 고참병이었다. 자대 적응 과정에서 몇몇 아스피린이 구보하다가 죽었다는 풍문이 들리기도 하던 시절이었다. 그의 표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담담했다.

김삼수도 나처럼 말단 보병의 소총수부대 소총병이었다. 연대 인사부, 사단 감찰부 등에서 차출해 쓰려고 여러 번의 면담이 있었으나, 보안대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 국방부에서 이미 지정된 소총수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일부 아스피린들은 집안에서 실력을 행사해 그나마 소총부대 행정지원병 등으로 빠져 나가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김삼수는 참으로 보병소총병의 귀감으로 의연히 병영생활을 해낸다. 내가 너무 힘들어 스스로에게 징징대고, 학창 시절 시위한 것을 못내 후회하다가도 그를 보면 힘을 얻곤 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조용범의 〈후진국경제론〉, 박헌채의 〈민족경제론〉, 〈한국노동운동사〉, 이영희 교수의 몇 가지 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휴가를 나와서 그 책들을 사서 보곤 했다. 김삼수 교수는 군대 졸병 신분이면서 내게 처음으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지도한 사부님이기도 했다.

동부 최전방의 흑헌6주동계훈련은 극한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는 오히려 그 힘든 훈련과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다. 나보다 1개월 먼저 제대를 했는데 보통 제대1, 2개월을 남기면 모든 훈련에서 열외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김삼수는 태연하게 제대 전날까지 각개전투훈련을 졸병들과 함께 모범적으로 받았다.

언젠가 그에게 물어볼 심산이다.

태초에 절규가 있었다

아스피린 소총병으로 왜 그렇게 열심히 군대생활에 임했는지?

아마도 만주벌판에서 싸우던 독립군을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비극적인 해방공간에 도망갈 길 없던 빨치산을 생각해 냈을까?

내가 제대하던 1978년 2월은 지독하게도 눈이 많이 내렸다. 전방초소부대에서 허리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쳐가며 대대본부로 내려왔다. 전역 전에 나는 사단을 대표하는 음어 및 화생방 전문요원이었고 1977년 내가 참여한 전투력측정에서는 우리 사단이 전군 최우수부대로 뽑혔다. 이를 포상하기 위해 80여 명에게 특별 휴가가 내려졌는데 그만 나는 교련 혜택으로 휴가보다 먼저 전역명령을 받았다. 눈길을 헤쳐 전방초소를 내려온 바로 그날, 함께 전투력 측정을 받았던 전우들이 버스 3대에 분승하여 휴가를 가던 중 군축령을 넘다가 그만 3대 차량 모두가 50미터가 넘는 계곡으로 굴러 40여 명 사망, 전원 중상이라는 사고가 났다. 나는 운 좋게 적시에 제대 특명을 받아 대열에서 빠지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내인생은 항상 덤인 듯싶다. 우리의 현대사가 그렇듯이어.

그리고 이듬해 박정권은 권총소리와 함께 끝났다.



정은교_ 서울대 국어교육과 73학번. 전국교직원노조 편집실장, 양강중 교사(현)

옛날 어느 어린이의 재미없게 솔직한시 하나가 있다. 원고 청탁을 받은 내 심정과 조금은 비슷해 먼저 소개한다.

보리밭

나는 보리밭을 본 적 없다.

그래서 쓸 기(=것)이 없다.

나더러 “암울한 긴급조치9호, 군사독재의 시대에 얼마나 열심히 투쟁했는지 쓰라”고 하면 쓸 것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도 억지로 읊조리면 ‘허세로 흐르기 십상이라 붓을 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 된다. 다만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늙마에 그 시대를 어떤 심정으로 되돌아보는지 가볍게 털어놓으라고 요청한다면 한 마디 거들 수는 있다.

그 시대에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젊은이들, 참 많았다. 나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군대에 바로 입대했고 뒤로 휴가 나올 때마다 동기 박석은 군의 자취방에 하릴없이 죽치고 앉아있었